



이상일 협회 회장은 김기석 설비조합 이사장과 함께 지난 6월 25일 설비건설회관 회장실에서 국토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과 환담을 나눴다


## 이상일 회장, 국토교통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과 환담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김기석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백종윤 협회 수석부회장, 강신구 협회 상임부회장과 함께 지난 6월 25일 설비건설회관 회장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국토교통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건설경제과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1개월 전에 부임한 김경욱 국장은 우리협회의 명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변경, 승인한 후 우리 업계를 처음 방문한 것이다.

이상일 회장은 김경욱 국장에게 “부임 초라 바쁘신 국정 중에도 우리협회와 설비조합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최근들어 발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실행 공사비에도 못미치는 저가낙찰과 관급자재 확대,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은 이제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 생산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건설산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

급제도가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또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비 및 자재의 일괄발주를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축소, 설비조합의 보증서 거부사례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회장의 건의에 대해 김경욱 국장은 “건설정책 관련 주무국장으로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전 건설업계가 다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정책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협회는 지난 6월 26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현안 및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회장단 회의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6월 26일 설비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플랜트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 등 협회 현안에 대한 추진사업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플랜트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발전5사에 기자재공급자 신청업체의 자격 및 기자재(물품) 구매시 건설공사 발주방식 건의 △발전플랜트 현장의 기계/보일러 설치공사 현안 및 적정공사비 반영 건의 △발전소 플랜트건설 현장 직장폐쇄 현황 △기계설비 분리발주·주

계약자 공동도급 홍보자료(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기계설비 관급자재 축소 추진 △기계설비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2015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추진 △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와 기계설비 발전 TF회의 개최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2015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발표 △협회 홈페이지 재편성 개발사업 추진 △월간 기계설비 300호 기념 좌담회 개최 △협회 정관 변경 △이사·시도회장·조합 운영위원 합동 간담회 개최 계획 △협회 홍보 전시관 설치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되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TF회의를 개최하고 기계설비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 종합건설협의회와 기계설비발전 TF회의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한국 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이용우)는 지난 6월 22일 설비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기계설비발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회 정달홍 부회장, 김경희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종합건설협의회 이재근 부장(한화건설), 하위용 부장(대림산업), 박승철 부장(한신공영), 김용성 부장(두산건설), 이상태 부장(GS건설), 서용근 부장(대우건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기계설비 관급자재 축소 △발전 5사, 기자재공급자 신청업체 자격 및 기자재 구매시 건설공사 발주방식 개선 △발전플랜트 보일러 설치공사 현안 및 적정공사비 반영 △플랜트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건설업 노임 단가 조사 홍보 협조 △발전소 플랜트건설현장 직장폐쇄 현황 △기계설비 적정 하도급공사비 반영 협조 등 기계설비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기로 했다.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변동주)는 지난 6월 23일 설비건설 회관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랜트 업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랜트현장의 외국인력 고용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비롯해 발전플랜트의 적정공사비 관련 건의사항과 플랜트현장 건설근로계약서 사용 관련 사항을 논

의했다.

또한 지난 6월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해외건설업·플랜트 관련기관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의한 해외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련 사항을 비롯해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의 현장동향 등을 보고했다.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3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현안을 논의했다

## 제3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전치권)는 지난 6월 30일 제3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제어 인정기능사 종목 신설 등 협회 현안을 논의했다.

전치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생산자동화 인정기능사 신설 건의로 올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회원사에 생산자동화 인정기능사 신청서 접수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다”

면서 “자동제어업계 현업종사자에게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생산자동화 인정기능사에 응시하여 많은 기능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종별 회원 및 기성실적, 기계설비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홍보,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발전방안 등을 보고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6월 2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8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제285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6월 2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8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을 의결했다.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달 조찬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메르스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백종윤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업계가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절실한 때”라며 “우리 기계설비업계는 건설업계에서 날이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서울특별시회 7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
- 2015년도 제2차 분리발주 현장간담회
- 제34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실시
- 운영위원 문화행사
- 2015년도 하반기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생 추천 안내
- 2015년도 하반기 설비관련대학 장학생 추천 의뢰
-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추진
- 분리발주 수주 회원사 사후관리 및 비회원사 회원가입 상담 방문업무 추진 